

경관이 음란토포영업

無許 나이트클럽 운영...나체쇼등 공연

신분이용 區廳단속 막아

서울지검남부지청형사3부 무허가로 2백여평규모의 극장식나이트클럽을 개업, 불법으로 음란토포영업을 해온 서울태릉경찰서 柳成洙경장(49)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柳경장은 지난 3월 초 서울永登浦구永登浦5가 20에 80평규모로 일반음료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놓고 이를 무시한채 2백여평규모로 1층 다이아몬드극장식나이트클럽이란 간판을 내건채 속칭 나체쇼 댄스「기모기」장(음란영양)을 해

'88서울올림픽공식치약

리도 메디안 치약

태평양화학

12,10

하루평균 1백50만~5백만원의 매상을 올려왔다는것.

柳경장은 서울태릉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중 지난 2월 신병 단속중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한채 지난鄭씨와 합작해 1억5천여만원의 돈을 이틀만에 개업,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柳경장은 그동안 자신의 경찰관신분을 이용하여 불법영양의 대한관할 경찰서 및 구청의 단속을 무마해 왔다는 것이다.